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を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시 11시 전법기도 법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매달 둘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오후 2시 - 4시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p>Introduction to Meditation Starting January 15,2009-February 12, 2009 Every Thursday from 7pm-8: 30pm Teacher: Ven. Sungak Sunim (First, Third, Fifth Class); Hae Won Bopsanim (Second Class); Mr. Greg Kilper (Fourth Class).</p>	<p>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p>
--	---

이달의 법구경

홀로 저지른 죄악은
 홀로 고통을 당하고,
 죄악 저지르지 않는 사람
 홀로 청정하게 되네.
 청정과 염심은 자신이 만드는 것,
 아무도 내 허물 청정하게 만들 수 없네.

By oneself the evil is done, and it is oneself who suffers: by oneself the evil is not done, and by one's Self one becomes pure. The pure and the impure come from oneself; no man can purify another.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9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조계종 표준 한문·한글 <금강경> 봉정

“오늘 봉정한 이 경전을 무량한 법장(法藏)을 여는 열쇠이며, 일체의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광명입니다. 마치는 밝은 사람이 밝은 태양 아래서 모든 사물을 보듯이 저희 종도들도 <금강경>을 수지독송하여 존재의 본성을 바로 보고,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나와 남이 함께 성불하기를 발원합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스님)는 표준 한문·한글 <금강경> 편찬을 완료하고 1월 20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정식을 봉행했다. 조계종은 지난 2006년부터 종단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통일 한문·한글본 편찬을 추진해 왔다.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실무위원회는 2년간 학술연찬을 통해 표준 <금강경>을 완성, 조계종출판사에서 펴냈다.

종정 법전스님은 “금일에 한문본 <금강경>과 한글본 <금강경>의 조계종 표준본을 만들어 대각존과 유통선인(流通先人)들에게 우러러 고(告)하면서 상재(上梓)하노니 이후 이천만 종도(宗徒)들은 이를 지남(指南)으로 삼아 정진하고 또 전법할진저”라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치사를 통해 “현존한 육역본(六譯本)과 여러 번역·해설서와 범본까지 대조해 종단 표준으로 간행하게 돼 반가운 일이다”며 “편찬실무위원들과 간행을 지도한 교육원장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 조계종 표준 <금강경> 독송본과 주석본.

교육원장 청화스님은 간행사에서 “그간 <금강경>은 조계종 소의경전으로 많은 불자들이 널리 독송했으나,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체득하지 못한다면 조계종의 종지와 종풍을 드러내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번 표준 <금강경> 편찬으로 금강의 지혜를 체득하고 불법의 광대한 바다를 건너가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금강경편찬실무위원회 위원장 연관스님은 “표준 <금강경>은 각주를 달아 경의(經義)의 이해를 도왔고, 부록으로 우리말 술어를 주어로 해 한역과 범어를 대조함으로써 그 뜻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봉정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교육원장 청화스님, 포교원장 혜충스님, 총무부장 원학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표준 <금강경> 어떻게 다른가?

2년여의 번역작업 끝에 완성된 조계종 표준 <금강경>이 1월 20일 모습을 드러냈다. “육조(六祖)스님 당시 이미 이경을 주석한 이가 팔백여가(八百餘家)에 달했다”는 <금강경>은 그간 국내에도 백여 종이 넘는 한글번역본이 발간됐다. 조계종이 이번에 종단의 표준본으로 펴낸 <금강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간의 번역본과는 어떻게 다를까?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스님)는 표준 <금강경>의 특징으로 ▲편찬실무위원회를 통한 종단 차원의 편찬 ▲판본 대교작업을 통한 한문 교감본 편찬 ▲공동 작업으로 한글 번역 ▲범본 및 이역본을 참조한 한글 번역 ▲여러 차례에 걸친 윤문과 학술적 검증을 꼽는다

전문 편찬실무위 구성

조계종 표준 <금강경>이 여타 번역본과는 다른 특색이라면 ‘공동작업’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연관스님(前 화엄학림 학장)을 위원장으로 한 금강경편찬실무위원회는 2007년 5월 발족했다. 편찬위원으로는 각목스님(화엄학림 강사) 무애스님(송광사 강사) 송찬우 교수(중앙승가대) 김호성 교수(동국대) 김호귀 연구교수(동국대)가 참여했다. 불학연구소는 “편찬위원들은 <금강경>에 조예가 깊을 뿐 아니라 각각 팔리어,

반야사상, 한학, 대승불교, 선학 전문가로 번역의 전문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년여 간 21 차의 편찬실무회의와 워크숍·학술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종스님은 “전통적으로 경전 번역은 개인차원이 아닌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공동으로 번역하고 검증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실무위 구성은 이같은 역경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본·역본의 꼼꼼한 검토

또 다른 특징은 꼼꼼한 판본 대교작업이다. 표준 <금강경>의 저본(底本)은 구마라집 역본, 판본(板本)은 고려대장경본이다. 실무위는 고려대장경 판본을 여타의 대장경 판본과 대조해 여덟 군데의 자구를 수정했다. 번역본 역시 한역본 뿐만 아니라 범본(梵本)과 다섯 종의 이역본을 참고해 자구의 의미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했다. 일례로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基心)’은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로 번역했다. 이처럼 번역 과정에서 기존 한글본과 다르게 번역된 부분은 주석을 달아 별도의 주석본으로 발행해 이해를 도왔다.

수차례 윤문·학술 검증 거쳐

편찬실무위가 <금강경> 한글 번역본을 완성한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실무위는 국문학자와 시조시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장 윤문을 거쳤다. 문법 감수와 주석을 완성한 후인 지난해 6월에는 공청회를 열었고, 역경위원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감수를 받기도 했다. 김호성 교수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술어 등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려 노력했다. 대신 각주를 통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덧붙이고 한문술어는 따로 색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종스님은 “향후 편찬실무위가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표준 <금강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총무원·교육원·포교원장 명의의 협조 공문을 본사에 발송하는 한편, 승가교육과 연수를 통해 표준 <금강경>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사찰 의식집 편찬 시 해당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계종 표준 <금강경>의 독송본과 주석본은 조만간 조계종출판사를 통해 시중에서도 판매된다.

종교평화국제사업단, 美뉴욕서 세미나

UN과 함께 활동하는 세계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간 평화구축과 인권보호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산하 사단법인 종교평화국제사업단(IPCR)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미국 뉴욕 유니세프 회의실에서 ‘UN 산하 종교 NGO와의 공동세미나-세계 종교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종교단체와 지도자들 및 UN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끈다. 전 세계 6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와 54개 UN 회원국, 유엔기구와 종교 NGO 110개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종교간 협력 3자 포럼, UN 종교 NGO 위원회,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위한 NGO 위원회, 평화를 위한 종교간 협력 UN 10개년 계획 구상을 위한 임시운영위원회 등이 참석 또는 후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현종스님과 권오성 KCRP 공동의장 등 7대 종단 대표 10여명이 참석한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이어지는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평화, 개발, 인권에 대한 종교의 기여’ ‘세계 종교와 UN 간 협력’ ‘세계 종교와 UN 간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현종스님은 불교계를 대표해 ‘평화, 개발, 인권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에 대해 발표한다. 또 16일 있을 환영 리셉션에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새로운 자기발견과 정화 ‘모색’: 선의 중요성

이래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왔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깨어지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가 아닌 자연을 파괴하는 파괴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의 파괴로 지구는 생존의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대해 인간은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한 지나친 과학의 발달로 인류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일상생활을 비롯해 모든 생활이 편리해지고 시간도 절약되었으며,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났다. 컴퓨터의 발달로 가만히 앉아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스컴과 출판의 발달로 쏟아지는 정보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생활은 편리한 듯 하지만 오히려 변화의 불안감으로 인간은 마침내 정신적으로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현대인들은 정신과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평온을 종교에서 찾고자 한다. 바로 여기에 현대의 종교가 해야 할 사회적인 역할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인에게 종교는 바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현대인의 욕구에 맞춰 종교도 다양화되어 갔다.



그러한 속에서 오랜 세월 인간의 내면과 정신의 수행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불교는 다양한 수행법으로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평온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 특히 불교의 수행법 중 선은 현대인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선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불교의 실천수행 중 제일 으뜸이며,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자재해탈(自在解脫)의 피안세계로 이르게 하는 최상의 수행방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은 현대문명이 만들어 낸 물질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성 상실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선은 인간성 회복과 인간 각자의 건강한 사고를 유지하고 인간신뢰를 회복하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현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인간 각자의 자기비판과 성찰을 통한 깊은 자각만이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겠다. 결국 위기를 만든 주체도 인간이며, 해결책도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과학문명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선은 인간성 회복과 인간 각자의 건강한 사고를 유지하고, 인간 신뢰의 사회를 이룩하는 활력소를 위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 발견과 자기 정화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자기 발견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선은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을 응시하고 바로 세우는 실천의 가르침이다.

선은 이제 몇몇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들만의 수행법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바른 이해가 있어야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 선을 수행하는 인구는 많은데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다. 선을 하면 어떤神通을 얻게 되고, 남의 마음을 읽게 되고, 미래를 알게 되고, 전생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귀신을 보게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선수행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막상 수행을 하여 이런 능력이 오지 않으면 수행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회의까지도 느끼면서 고민을 한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병통이다. 그리고 단순히 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사실 선은 호기심만으로 시작하기에는 그렇게 단순한 수행법이 아니다.

또한 선에 대한 많은 서적, 다양한 명상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과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빨리 결과를 얻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선과 명상이라는 이름을 빌려 악용하는

경우가 더불어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먼저 바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참선을 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한다. 그러한 기대심을 품고 있으면 의식 속에서 환영과 상상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며, 그것을 위대한 선적(禪的) 체험이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무의식의 산물일 뿐 대단한 것도, 기뻐하거나 환영할 만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결과 마음에 불균형을 가져와 수행자는 수행의 길을 포기해 버리거나 비정상적인 길로 빠져 버리게 되고 좌절감을 겪기도 한다.

인간의 마음이란 무명(無明)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맑지 못하여 외부 세계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없다. 어렵듯하게 알게 된 마음은 잘못된 환상을 보게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맑지 못한 마음으로 부처를 보려고 하는 것은 어둠 속을 더듬는 것과 같다. 부처는 설명할 수도, 마음으로 그릴 수도 없다. 부처에게 온갖 이름을 붙이고 형상을 붙여 말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다.

참나를 얻은 사람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문제에 속박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지만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수행은 바로 자기 내면의 보물을 찾는 것이다.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 즉, 부처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은 참된 나와와 만남이다. 참나를 발견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통이 없고, 원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이 없으며, 탐욕 가운데 있으면서도 탐욕이 없고, 성냄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냄이 없다. 세속에 살면서도 늘 세속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깨달음은 인간의 양심을 위배하지 않는 행동에 의해, 자신에게 거짓을 보이지 않는 수행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다. 끈기 있고, 진실 된 수행은 참나를 찾는 가장 좋은 안내자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혜거스님 / 서울 금강선원장

깨달음은 밝고 청정한 마음을 아는 것

2009년 1월 7일 중앙일보 종교 칼럼 부다나라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

2009년 소띠 해 셋째 날 토요일은 음력으로 12월 8일인데 이날은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성도재일”이다. 이날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라와 장소를 불문하고 “철야 참선 용맹 정진”을 한다. 예년과 다름없이 올해에도 불자들이 성도재일 인 토요일 저녁에 부다나라 (불국사) 법당에 모여 본래 청정한 마음을 찾기 위한 참선 정진을 한다.

이날 세인트루이스에는 한 겨울 인 데에도 불구하고 짙은 안개까지 대지위에 내려 앉아서 더욱더 춥게 느껴지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마음 다스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용맹정진을 하기 위해서 모이신 신도들의 열기로 법당 안에는 훈훈한 기운마저 감돌게 한다. 이 날 정진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얻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키워 진다면 부처님처럼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시시각각으로 부딪치는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라도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로 세울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는다면 큰 소득이라 하겠다.

약 2천 오백오십이년 전에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기 까지는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수행을 방해 했던 으뜸은 단연 어둠과 고통의 왕인 마왕 파순과 세 딸의 방해이다. 마왕 파순 에게는 단 한 번만 이라도 보면 모두 반해 버리고 만다는 미모의 세 딸들을 부처님께 보내서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했었지만 부처님은 이미 세속의 욕망과 집착을 모두 버린 상태이므로 수미산처럼 세 딸들의 유혹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세 딸들이 부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하자 마왕 파순이 직접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까지 했지만 마왕 파순은 결국 부처님의 위신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처님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수행을 방해했던 마왕 파순을 자비로 감싸 안아 그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용서와 화해라는 큰 사랑의 선물로 되돌려 보내고 마침내 그를 감화시켰다.

올해는 끈기와 성실함의 상징인 기축년 소띠해이다. 소는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매우 친근한 동물임과 동시에 깨달음을 묘사하는데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다. 우리 민족이 쓰는 말 중에서는 “쇠 심 줄처럼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 있다. 즉 고집이 센 사람을 뜻할 때에도 소에다 비유를 한다. 불교의 “심우도”는 10 가지 수행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인간이 본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마음을 표현하는 소와 수행자인 동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을 얻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수행이다.

자기를 찾는 결심의 단계인 “심우”에서 부터 본성의 자취를 발견한 견적, 오랜 노력과 수행 정진 끝에 본성을 발견한 “견우”, 본성은 깨달았지만 아직은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거친 본성을 지닌 “득우”, 참선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마음의 때를 지우는 단계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단계인 “목우”인데 이때에도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은 알지만 아직도 마음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여섯번째는 동자가 피리를 불며 소등을 타고 가는 그림인데 내가 내 마음을 타고 본래의 세계로 되돌아 간다는 “기우귀가”, 본래의 마음을 찾아 하나가 되었으니 본성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망우존인”, 오직 공(空)인

“인우구망”,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이다.”라는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참된 지혜를 얻은 “반본환원”, 깨달음을 얻은 뒤 중생들을 제도하는 단계인 “입전수수”이다. 부처님께서 마왕 파순의 방해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재일을 소띠 해 들어 바로 새해에 맞이 하게 되는 일은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심우도”에서 주는 가르침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이 뜻하는 바를 마음을 열고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다. 2009년 소띠해에 자기 자신을 청정한 마음으로 채워나간다면 이 세상 또한 청정한 세상으로 차츰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온 사중이 바쁘다: 정월(正月)
모든 대중이 먹을 명절 떡 빚어, 선원과 대중처소는 옷놀이 즐겨

정월이 임박하면 선원뿐 아니라 온 사중(寺中)이 바쁘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믐이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이는 예외 없이 참석하는 울력으로 모든 대중이 명절에 사용할 떡을 빚는다. 대개 송편을 만드는데, 각지에서 모인 스님들답게 팔도(八道)의 특색을 한 눈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법(法)에는 팔도(八道)의 구분이 없지만 풍습은 별개라고 한다면, 생똥맞은 것일까? 아무튼 그 자리 만큼은 어른 스님의 법담보다도 재담(才談) 있는 스님이 돋보이는 날이다.

어느 때인가 구참 스님이 들려준 일화가 떠오른다. 예전에 해인사 해우소, 통도사 가마솔, 유점사 큰 방이 유명했다고 한다. 그곳에 살던 스님들이 서로 궁금하여 만행 길에 올랐다가 한성(서울)의 한 사찰에서 만났다. 단숨에 의기투합이라도 한 듯 쉴 틈도 없이 각자의 도량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먼저 해인사에서 온 스님이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해우소가 얼마나 깊은지 1년 전에 불 일을 보고 아직도 바닥에 떨어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는 길입니다.” 뒤질세라 통도사에서 온 스님이 이야기를 했다. “저희는 지난해 동지 때 가마솔에 팔죽을 짓기 위해 나룻배를 타고 수평선 너머로 간 스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점사 스님 왈 “지난해 큰 방에서 정진하던 스님이 지평선 너머로 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황당하여 실소(失笑)했지만, 한편으로는 납자다운 기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납자의 ‘뽕(?)’은 알아줘야 한다는 말이 있는가 보다.

뛰니 뛰니 해도 정월의 백미는 그믐날 펼치는 옷놀이이다. 지금까지 제방 선원과 대중처소에서 지내면서 그믐날 옷을 깎다 보니 으레 옷 준비는 내 차지였다. 자고로 옷은 밤나무로 만들어 왔다. 그래야 무게감이 있고 말라도 단단함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본 기억을 더듬어 만들었는데 어느덧 ‘법광표(?)’ 명품이 되어 버렸다. 하나하나가 동그스름해서 던지고 나면 바로 착지해 멈추는 일이 없었다. 옷이 구르는 동안 긴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옷놀이날의 상품은 참석한 대중이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푸짐하게 준비하는데, 대체로 자발적인 보시로 마련한다. 사중에 있는 어른 스님이나 다른 처소의 명성 있는 스님들까지 글씨나 그림을 때 맞춰 보내오고, 주위에 ‘요’를 굽거나 ‘차’를 하는 곳에서는 다구와 각종 차를 보시한다. 사중에선 보시금까지 내놓는다.

처음엔 재미로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는 뜨거워진다. 열기가 더해 어지간히 애매 할 땐 우기는 일까지 생겨 ‘억지 아닌 억지’를 쓸 때도 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심판 역할을 담당하는 ‘판관’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있다. 송광사 선원이 그랬다.

지난 2000년 순천 송광사에 동안거 방부를 들였을 때는 졸지에 그 소임을 맡았다. 속성을 따서 ‘이(李)판관’이 되었다. 본디 생길지도 모를 분란을 예방하기 위해 상판에서 나오는 소임이었던단다.

그런데도 평소 칼칼해 보이는 성미 때문에 중판(중간) 승납에서 ‘발탁’된 것이다. 선배 스님들이 드문 일이라 했다. 옷가락이 동그스름하다 보니 판단을 요청할 땐 이미 양쪽이 팽팽히 맞서있는 상황이었다. 자칫 한쪽을 편드는 것 같아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된 옷가락을 던져 주었다. 이의가 없었다. 명판관이었던단다.

흔히 ‘모 아니면 도’란 말은 한 건 크게 되지 않을 바엔 별 관심 없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번 정월엔 ‘도 아니면 걸’ 정도의 바람으로 던지면 어떨까 싶다. 느려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처럼 소띠 해에 맞춰 어렵고 힘들수록 차분히 출발했으면 해서다.

불교 신문에서 발췌: 법광스님 / 전 백양사 강주

국내 종교 신도수 8천여만명(?)

문화부 '한국의 종교현황' 발간

국내 각 종교단체들이 제출한 신도 수를 합산한 결과 지난해 종교인구가 우리나라 총인구를 훨씬 웃도는 8천 259만 2천 5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교별 신도수는 불교 3천 958만 1천 983명, 개신교 1천 194만 4천 174명, 천주교 487만 3천 447명, 유교 1천 18만 5천 1명, 천도교 10만명, 원불교 148만 5천 938명, 그밖의 종교 1천 442만 1천 511명 등이다.

문화부는 종교단체들이 제출한 신도 수와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5년 인구조사 결과를 함께 적시해 놓았는데, 당시 총인구는 4천 704만 1천 434명, 전체 종교인구는 2천 497만 766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종교별 인구는 불교 1천 72만 6천 463명, 개신교 861만 6천 438명, 천주교 514만 6천 147명, 유교 10만 4천 575명, 천도교 4만 5천 835명, 원불교 12만 9천 907명, 그밖의 종교 19만 7천 635명 등이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종교현황'에서 종교별 교단수는 불교 103개, 개신교는 124개, 천주교·천도교·원불교·대종교 각 1개, 그밖의 종교 38개 등 모두 270개로 나타났다. 파악되지 않은 교단도 240개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교회나 사찰 등의 수는 불교 2만 1천 935개소, 개신교 5만 8천 404개소, 천주교 1천 511개소, 유교 1천 49개소, 천도교 108개소, 원불교 561개소, 대종교 22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교직자수는 불교 4만 9천 408명, 개신교 9만 4천 615명, 천주교 1만 4천 597명, 원불교 1천 886명 등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종교현황 자료는 각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정확한 통계수치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교 신도는 이곳저곳 사찰에 두루 등록을 하는 종교적 특성이 반영돼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천주교는 세례를 받은 신도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통계청 조사보다 오히려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종교현황'은 종교별 교세와 사업현황 자료 등을 담고 있으며 1998년, 200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발간됐다.

불행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출발점; 틀 깨면 세상을 수용할 수 있어

문: 모든 종교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가장 합리적이라는 불교에서도 힘들 때는 역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은 과연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지요 만약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불교적인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즉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험 없는 노력과 오랜 기다림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춘다면, 그때쯤에는 자기의 기도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알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없는 몽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문득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몽상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언제나 목적지와는 먼 곳에 정지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부터 성취를 위한 진정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력이라고 하며, 비로소 불교적인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늘 그리던 곳을 향해 어두운 밤에 차를 몰아가고 있다면, 목적지를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조등이 비치는 부분만 보면서 가게 됩니다. 불빛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원래의 목적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힘들다고 중간에 멈추면 목적지는 결코 나타나 주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목표를 향해 험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부터 장래희망을 머리맡에 붙여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꿈을 이루겠다고 노력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비록 빠르고 느림의 차이는 있어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계속 희망을 바꾸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기다리는 노력을 불교의 기도에서는 '정근(精勤)'이라고 합니다. 이 정근이야말로 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저력이 됩니다.

목표를 크게 세운 사람은 그 목표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큰비가 오면, 뿌리 깊은 큰 나무는 비를 수용하여 생기를 되찾고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얇게 들떠있는 작은 나무는 비에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크게 세웠는데 자신은 아직도 작은 그릇으로 남아 있다면, 정작 그 목표를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수용할 수 없어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것을 불교에서는 '틀을 깨'이라고 하는데,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 마음을 오롯하게 정리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며, 들떠있는 허깨비 같은 마음의 그림자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의 조작일 뿐이다'고 하는 것이지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그 이유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고 노력하여 자기의 꿈을 이룬 것이고, 불행한 사람은 세상을 타할 평계를 찾았을 뿐이지요.

불교신문에서 발췌: 송강스님 / 개화사 주지

법회소식 NEWS

-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 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법회 장소는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에 있는 Meeting Room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이고, Center 연락처는 (404) 510-6957, 또는 (314)993-0185 입니다.
- 기축년 소띠해 가 밝았습니다. 2008 년에도 2007 년과 마찬가지로 주위 분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수 있도록 불자님들 가까이에서 계신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전법 많이 합시다.
- 2008 년 1 월 1 일부터 2008 년 12 월 31 까지 불국사 (Buddhanara Temple)에 250 불 이상 시주하신 신도님들은 Tax Credit 을 받으실 수 있으시도록 불국사에서 2 월 초까지 신도님들 가정으로 서신을 발송해 드립니다. 만약 2 월 10 일까지 Donation Credit Letter 를 받지 못하신 신도님들은 불국사로 연락 바랍니다. 신속하게 조치 하겠습니다. 소원 성취 하십시오.
- 음력 12 월 8 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중생제도를 하신지 올해로 2552 번째 맞이하는 성도재일 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기려서 불자들은 철야 정진을 통해 더불어 마음에 불성을 밝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다나라 (불국사)에서도 대한 불교 조계종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올해에도 참선 용맹 정진을 했습니다. 참선 용맹정진에 참석하신 신도님들 소원 성취 하십시오.
- 1 월 15 일부터 2 월 12 일까지 매주 목요일 7 시부터 8 시 30 분까지 불국사 법당에서는 현지인들 중에서 불교와 참선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5 번에 걸친 강의를 준비 했습니다. “Introduction to Meditation” 은 불국사 주지스님이 1, 3, 5 번째의 강의를 담당하고 미국인 해원 법사님이 두번째 강의를 , Mr. Greg Kilper 거사님이 4 번째 강의를 담당 합니다. 강의 내용은 불교를 모르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참석하시는 분들이 현지 미국인들이 중심이 되므로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 됩니다. 동참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1 월 7 일부터 1 월 13 일까지 약 1 주일 동안 중앙승가대학에 재학 하시는 해용스님께서 졸업을 앞두고 학문과 수행을 더 깊이 하시고 싶은 원력으로 가지고 불국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 월 24 일까지는 이상엽 학생이 불국사에 그동안 머물다 한국에 무사히 돌아 왔습니다. 그동안 스님과 이상엽 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불국사 신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9 년 1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9 번 을묘생 이승민, 10 번 태중아기, 33 번 경자생 안대원, 34 번 무술생 김상화, 35 번 신미생 안형철, 36 번 계유생 안형태, 288 번 계축생 강복기, 289 번 계미생 강민서, 546 번 파평후인 윤평신 영가 (행효자 윤치선 복위), 547 번 청주유인 자순열 영가 (행효자 윤치선 복위).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해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